

전남도의원 외유연수에 용역업체 간부 동행

가뭄 극심한 지난달 호주·뉴질랜드 다녀와 관광지 다수 포함... 보고서에 명단 빠져 의혹

도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왜 '업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가면서 업체 관계자들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 기간은 가뭄으로 농민들이 크나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다.
 2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박9일 일

정으로 호주·뉴질랜드·피지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자연형 하천 조성과 재해 대응 정책에 대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다. 총 경비는 4800여만원이었다.
 연수에는 7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처장, 전남도·익산지방국도관리청 공무원 등 13명이 참가했다. 당시는 가뭄으로 모가 고사되거나 모내기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때였다.
 일정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드니타

워, 맥쿼리공원, 오페라하우스, 레드우드 수목원, 아그로돔 농장 등 관광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로 인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해당 연수에 전남도 하천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2개 회사 간부 1명씩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연수에 전남도 하천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2개 회사 간부 1명씩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도의원 연수에는 전남도 등 관계 기관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동행하지만 업체 관계자가 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남도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도의원들이 '업자'들을 동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외연수 보고서에도 참여 대상은 도의

원 7명, 전남도·익산지방국도관리청 등 공무원 6명만 기재됐다. 관계 회사 직원은 동행했지만 보고서 명단에는 빠져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경비를 개별 부담했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모 목포경찰서 사무국장은 "전남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원들이 전남도 공사용역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라며 "연수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노약자 결핵예방 전수검진 나선다

관리 협의체 구성 3년간

전남도가 노인 결핵 전수검진에 나선다.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 전남의 새 결핵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87.5명으로 전국 평균(63.2명)보다 24명 이 많다.
 특히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91%로 높아 2016년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감염병 분야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국립목포병원, 대한결핵협회, 지역 병원 등 27개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결핵관리 민간-공공협력체'를 통해 결핵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호 역할 분담과 협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결핵 전수검진을 처음 실시할 방침이다. 과거 환자 발생 지역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

스션 장비가 탑재된 '이동검진차량'이 직접 찾아가 현장검진과 함께 즉시 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의 잠복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치료를 위해 잠복결핵 검진도 확대한다. 결핵환자와 수시 접촉으로 발병 우려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인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1만7000명이 대상이다.
 검진 결과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나 시군 보건소에서 2차 정밀검진후 완치까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결핵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해 보건소 방문서비스와 연계해 결핵환자의 복약 여부를 확인하고 결핵관리 순환지도반 운영도 확대해 밀착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상현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결핵에 대해 올바른 인식하고,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며,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결핵퇴치의 핵심"이라며 "보건소의 결핵 이동검진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클린프로젝트 환경기초시설 견학 26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환경단체 회원들이 북구의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쓰레기배출 요령을 설명 듣고 있다. <북구청 제공>

강진 손개불·신안 독살·완도 지주식돌김 양식 전남도, 국가 중요 어업유산 내일 신청

해수부 올 2개 추가 지정 관광자원 등 3년간 7억 지원

강진 손개불어업, 신안 독살어업, 완도 지주식돌김 양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지역 9개 예비자원을 발굴·검토해 3개 유산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개불 어업은 오지창 등을 이용해 바

다의 사니(沙泥·모래와 진흙) 층 구멍에 숨어있는 개불을 건져 올리는 것을 말한다.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해안이 개불잡이로 유명하다.
 독살 어업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 반원형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 잡는 것이다. 어업으로서 기능은 사실상 잃었지만 신안 자은도, 안좌도 등에 독살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주식 돌김양식은 기둥을 세워두고 밧을 설치해 김을 양식하는 전통 방식이다. 부유식보다 햇빛에 장기간 노출하면서 광합성을 일으키도록 해 김 본연의 맛과 향

을 살린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어촌의 고유문화를 발굴·보존하려고 2015년부터 국가 중요 어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보성 뱀어업(2호)과 신안 갯벌 천일염(4호)이 지정됐다. 또 제주도 해녀어업(1호)과 경남 죽방렴어업(2호)도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다.
 해수부는 올해 2개를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 자원 복원, 환경 정비, 관광 자원으로 활용 등 명목으로 3년간 7억원을 지원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0 항쟁 30주년 기념 광주시청서 사진·영상전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영상 전시가 26일 광주시청 1층 시민 숲에서 열렸다.
 전시는 '1987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진다.
 사진과 기록물, 영상으로 대학 신입생, 40대 하숙집 아주머니, 30대 시내버스 기사, 50대 대학교수 등 1987년 인간군상이야기를 전한다.
 입체 조형물 '팩션 스토리텔링'은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12월 대통령선거까지 격동의 시기를 30명 무명시민 목소리로 풀어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주택건설업체 5곳 중 1곳 행정처분

경고·영업정지 115곳 전체 등록업체의 19%

올 들어 광주지역 주택건설 업체 5곳 중 1곳이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관련 서류 미제출 등이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하면 건축경기의 하락세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 현재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체는 115곳으로 전체 등록업체 597곳의 19.3%에 달했다. 지난해 78곳, 2015년 65곳, 2014년 75곳 등과 비교해 30% 이상 급증했다.

최근 4년간(2014~2017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333곳에 달했다.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받는 경고 처분이 75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영업정지가 40곳이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광주시는 주택건설업체의 무더기 행정처분은 2014년을 기점으로 업체 수가 급증한 것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365곳인 등록업체 수는 2015년 531곳으로 급증한 뒤 2016년 590곳으로 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인도 사회정책연구원 공동연구 구축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인도 사회정책 연구원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6일 "인도 뭍바이에 있는 타타(TATA) 사회과학연구소, 텔리의 옵서버 연구재단과 28일 우호 교류협정(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류협정은 국제 이슈와 국가 정책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교류, 최신 정보공유 등을 위한 것이다.
 타타사회과학연구소는 사회과학, 공공정책 및 경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및 보건분야에서는 런던정치경제대학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옵서버연구재단은 외교정책 및 국제교류 연구분야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6번째의 싱크탱크로 분류되고 있다.
 박성수 원장은 "교류협정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진입이 예상되는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진단하고, 국가·지방정부의 미래 먹거리력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